

군산으로 떠나는 봄맞이 여행

하나 둘 올라오는 새싹들이며 훈훈한 바람이 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이제 저만큼 가버린 겨울을 잊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갯벌, 들판, 섬, 하구, 포구를 두루 거느린 군산의 초봄은 어떤 모습일까? 군산은 1,000리 금강이 서해로 빠지는 길목으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도시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군산 나들목을 빠져나와 군산 시내에 다다르자 봄바람이 살갓에 와 닿는다. 길손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군산 남서쪽 끝자락에 있는 하제포구. 군산시내에서 옥구면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된다.

초봄의 하제포구는 분주하다. 어망을 손질하는 어부들의 손놀림이 노을빛을 닮아있다. 저녁 4시 무렵의 하제포구는 닻을 내린 어선과 갈매기의 날갯짓으로 활기차다. 곧 노을이 깔리면 포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하제포구의 노을을 보기 위해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도 많다. 이런 포구 풍경과는 달리 이곳에서 살아가는 어민들은 외지인들이 그리 반갑지 않은 표정이다. 포구 경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포구에서 만난 한 어부는 어패류(노랑조개, 백합조개, 우럭, 놀래미, 광어, 꽃게, 새우





등)가 줄어들어 멀리 고군산열도 앞바다까지 배를 끌고 나가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행되면서 하제포구는 제 기능을 잃고 신음하고 있다. 바다 저 편으로 지는 해는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황홀한 빛살을 하염없이 뿌려댄다. 정면으로 보이는 크고 작은 섬들(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선유도 등)이 노을빛을 머금어 희끄무레하다. 하제포구는 그렇게 쓸쓸하지만 풍광은 여전히 아름답다.



길손은 하제포구에서 나와 가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따라 군산 시내로 들어간다. 군산대학교를 거쳐 시내로 가던 중 만난 은파유원지, 유원지 옆으로 보이는 호반(미제저수지)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다. 호반을 따라 난 순환도로 가에 가로수들이 늘어서 있다. 한 순간 바람이 지나가자 길에 뿔뿔이 날려버린 낙엽이 우수수 흩날린다. 길옆으로는 카페와 맛집이 늘어서 있다.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은 월명공원은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준다. 월명산을 비롯해 4개의 연봉이 둘러싸고 있는 도심 속의 휴식처다. 다 둘러보는데 3시간쯤 걸린다. 낙엽이 깔린 산책로와 등나무 길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딱 좋고, 바다조각공원에 가면 다양한 작품



들을 감상할 수 있다. 군산 앞 바다와 금강 건너편의 장항 일대가 손에 잡힐 듯 바라보이는 전망대와 수시탑(守市塔)은 늘 사람들로 붐빈다. 월명공원은 저녁 무렵이 더 아름답다. 봉수대 터가 있는 정방산 꼭대기에서 고군산 열도 뒤로 떨어지는 장엄한 일몰을 보노라면 일상의 시름이 말끔히 걷힌다.

시간이 있다면 월명공원 서쪽에 있는 은적사에도 가보길 바란다. 월명산과 왼쪽의 설림산을 병풍처럼 두른 조용하고 아담한 절이다. 신라의 원광국사가 이 산에 와 숨어살았다 하여 은적사라 불렀다고 한다. 시내에서 가깝고 주변 경관도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북쪽에 극락전이 있고, 남쪽에는 어린이집과 지장암이라는 2층 건물이 있다. 대웅전 앞에 있는 2기의 석탑과 주변의 연못도 볼 만하다.

월명공원에서 금강하구둑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채만식문학관(450-4467)이 보인다. 우리 문학사에 큰 자취를 남긴 소설가 채만식 선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다. 2층 건물에는 선생이 쓰던 각종 유품이 전시돼 있다. 탁류 초판본과 배비장전 육필원고는 그의 사상을 열추 들여다보게 해준다. 선생은 1902년 6월 17일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에서 출생했다. 서울 중앙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다니다 가정 사정으로 1년 반만에 중퇴했다. 귀국 후 동아·조선일보 기사를 지냈고, 1925년 단편 '새 길로'가 조선문단에 추천되면서 등단했다. 대표작인 '탁류'는 식민지 시대의 억눌린 서민들의 삶을 풍자적 기법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장편, 단편소설과 희곡, 평론, 수필 등 290여 편의 작품을 남긴 선생은 1950년 6월11일 지병인 폐결핵으로 생을 마감했다. 해망동 월명공원에 그의 문학비가 서 있다.(매주 월요일은 휴관. 개관시간 : 오전9시 ~ 오후 5시까지)

월명공원이 있는 월명동 일대는 일제시대의 목조주택과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소설(탁류) 속의 무대인 조선은행은 2층 석조 건물로 장미동에서 해안 쪽으로 가다 만날 수 있다. 이 건물은 한때 나이트클럽으로 쓰기도 했으나 현재는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 금암동, 장미동, 선양동 일대에서도 작품 속의 찻보전

창, 콩나물고개 등을 볼 수 있다.

짜보선창은 소설 속의 주 무대로, 선창 앞으로 짜보처럼 골이 갈라진 물길이 흐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리에 어관장과 현대식 건물이 줄줄이 들어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콩나물고개는 판잣집이 콩나물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어 지어진 이름으로 소설 속의 정주사가 매일같이 넘던 고개다.

철새, 그 화려한 군무

군산은 철새 탐조지로도 유명하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금강하구둑과 금강 주변, 나포십자뜰 등지에서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금강하구둑은 서산 천수만, 철원 비무장 지대, 주남저수지, 을숙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철새 도래지다. 이 곳에 날아드는 철새는 오리과 새들이 대부분이다. 국제 보호종인 가창오리, 백조로 불리는 큰고니, 머리를 빨 속에 박고 먹이를 찾는 개리, 수영과 잠수능력이 뛰어난 빨논병아리, 이동할 때 V자 편대비행을 하는 흑기러기·쇠기러기, 금실 좋기로 이름난 원앙 등등 40여 종 70만 마리에 달한다. 이곳에 새들이 날아드는 이유는 번식하기 좋은 조건, 즉 먹이가 풍부한 갯벌과 강, 드넓은 갈대밭, 그리고 높지 않은 구릉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구둑 옆에 들어선 철새조망대에서 금강호 일대에 찾아든 철새들의 모습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11층 높이의 철새조망대에는 고배울 망원경과 새와 관련된 각종 자료(새의 조상, 새의 계통도, 새의 신체 구조, 조류 표본, 곤충 및 동식물 표본 등)가 전시돼 있다. 이밖에 회전식 조망 식당과 영상관도 마련돼 있다. (입장료: 성인 2000원, 어린이 500원)

하구둑과 이어진 나포 십자뜰에서는 주로 가창오리떼를 볼 수 있다. 가창오리는 일출과 일몰 무렵, 하루 두 번의 멋진 군무를 펼쳐 보인다. 서쪽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4시 무렵, 어디서 날아왔는지 가창오리떼가 추수가 끝난 들판에 가득 내려앉는다.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새들이 인기척에 놀라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벌건 노을이 뒤덮은 하늘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초·중 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철새 탐조는 살아 있는 자연학습장이다.

철새 탐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일이 있다. 옷차림은 가급적 눈에 잘 띄는 붉은색과 흰색 계통의 옷보다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갈색 복장이 좋다. 또 추운 야외에서 관찰을 해야 하는 만큼 두껍되 가벼운 옷이 좋고, 냄새가 많이 나는 화장품이나 향수는 삼가야 한다. 조류 도감이나 망원경, 디지털카메라, 메모장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자.

군산은 17개의 유인도와 50개의 무인도를 품은 섬의 도시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들 섬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다. 군산항여객선터미널(446-7171)에서 각 섬으로 가는 배가 수시로 있다. 이 중에서 선유도는 고군산열도의 중심이 되는 섬으로 활 모양의 둥그런 명사십리 해변이 압권이다. 섬 북쪽의 장자도와 남쪽의 무녀도는 현수교를 통해 건너갈 수 있다.

글: 김 동 정 <여행작가>

☞ 여행수첩(지역번호 063)

자가운전 : 호남고속도로-익산 나들목-전군가도-월명공원 입구 또는 서천-금강하구둑-채만식문학관-군산항-월명공원 입구.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나들목 우회전-나포면 소재지-709번 국도-금강하구-철새조망대. 군산 시내-709번 지방도 옥구 방면-옥구읍사무소에서 우회전-군산비행장 방면-하제포구.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군산까지 15~20분 간격 운행. 군산버스터미널에서 하제포구까지 시내버스 20분 간격 운행.

철도편 : 서울역에서 장항선 열차를 타고 장항역(956-7788)에서 내린 후 성산면 가는 버스를 타고 10분쯤 가면 금강하구 입구다. 하제포구 주변에 하제끝집(471-4380), 사랑횃집(471-4227), 하제횃집(471-2095) 등이 있다.

금강하구둑 인근에 있는 계곡가든(453-0608)은 꽃게장 백반이 별미다. 1인분에 1만5000원. 군산항 여객선터미널 앞에 있는 군산횃집(442-1114), 정든횃집(446-9800)은 활어회가 싱싱하다. 4인 기준 10만 원선. 나포십자물 옆에 있는 옹고집보리밥집(453-8850)은 10여 가지 밀반찬에 구수한 우렁쌈밥을 내놓는다. 군산시내에 군산관광호텔(443-0811)을 비롯해 군장써미드호텔(450-1000), 파라다이스(452-6211), 영인장(446-3355), 리베라장(443-3111) 등이 있다.

